월간노동리뷰 | 2009년 2월호 pp.76~88
ⓒ 한국노동연구원

WPS 2007의 조사 설계와 실사 결과

김 기 민*

Ⅰ. 머리말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002년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노동수요 및 노사관계 등의 다양한 이슈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체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2002년 예비조사와 2003년과 2004년에 사업체패널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체계적인 설문 및 표본 설계 과정이 부족하였고 데이터의 오류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006년에 설문과 표본을 재설계하여 새로이 1,905개 패널사업장(민간부문 사업장 1,615개, 공공부문 290개)을 대상으로 WPS 2005를 구축하였다. 이 패널사업장을 대상으로 2008년에 사업체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2차년의 패널데이터인 WPS 2007을 구축하였다.

WPS 2007은 WPS 2005에서 조사된 일반사업장 1,615개와 공공부문 1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폐업, 휴업, 거절 등으로 인한 탈락된 표본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1,7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WPS 2007을 구축하였다.

WPS 2007은 WPS 2005를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설문 설계를 하였다. 특히 2007년의 중요한 이슈인 비정규직법이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과 작업장 혁신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부가조사로 추가하였다.

WPS 2007의 조사방법 및 과정은 WPS 2005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특히 질높은 패널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패널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과정 중 패널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imin1104@kli.re.kr).

사업장 컨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외 조사의 응답자는 WPS 2005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의 인사업무 담당자와 노사관계업무 담당자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되며, 면접원이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프로그램 역시 네덜란드 통계청이 개발한 블레이즈(Blaise)를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6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약 5개월간으로 사전 컨택, 우편물 발송, 방문면접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표본 설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설문과 조사단계에 대해 어떻게 점검하였는지 살펴보며, 제Ⅳ장에서는 실사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응답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표본 설계

WPS 2007은 WPS 2005에서 조사된 사업장을 패널화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표본 특성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표본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체패널조사는 매년하는 조사가 아니라 2년을 주기로 하는 조사이므로 표본 특성의 변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WPS 2005의 표본 설계를 통하여 패널사업장의 구성을 확인하고, WPS 2007의 대체표본 설계에 대해 살펴본다.

WPS 2005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수집되어 있는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규모인 모든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하여 산업과 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3,916개를 층화추출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2006년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원칙적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구분기준(법 제3조)을 최대한 적용하되 예외범위를 축소'하여 선정한 308개와 51개의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359개를 전수조사하였다. WPS 2005는 일반사업장 1,615개와 공공부문 290개가 조사완료되었다.

WPS 2007에서는 WPS 2005에서 조사된 일반사업장 1,615개와 공공부문 134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WPS 2005에서만 특별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WPS 2007에서는 WPS 2005 중 공공부문 추가설문에 응답한 2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업과 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134개를 층화추출하였다. WPS 2007은 일반사업장 1,299개와 공공부문 125개가 조사가 성공되었고, 조사에서 제외되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대체표본 설계가 이루어졌다.

대체표본 설계는 WPS 2005 표본 사업장에 대한 1차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탈된 표본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다음, WPS 2005 표본사업체의 표본 특성 변경사항을 정리·분석하여 표본설계 자료로 활용하여 2006년의 12월 말 기준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최신 모집단 자료를 통해 표본추출이 이루어졌다. 이 때 WPS 2005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단위의 표본조사로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결과 중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에서 사용근로자 30인 이상 규모인 모든 사업장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다. 대체표본 설계는 이탈된 사업장의 특성과 유사한 사업장을 표본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2007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설문 및 조사단계 점검

WPS 2007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WPS 2005의 설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가 설문을 구성하기 위해 WPS 2007 설문 설계를 하였다. WPS 2007의 설문 설계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약 5개월간의 노동시장, 인사관리, 노사관계 등 다양한 연구분야의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설문을 설계하였다. 전문가회의는 고용부문(근로자 현황 설문과 재무 현황 설문 포함), 인적자원관리 부문, 노사관계 부문, 비정규직법안 관련 부문, 작업장 혁신 부문, 공공부문 등 총 6개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근로자 현황 설문의 경우 WPS 2005에서는 근로자수로 질문하였던 모든 문항을 남녀로 구분하여 근로자수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WPS 2005에서는 파견・용역・일시대체근로자를 하나로 합쳐서 그 수를 파악하였으나 WPS 2007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질문하였다. 기업 전체 근로자 및 조합원수 문항을 추가하였고, 핵심직종의 정규직 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청/용역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WPS 2005의 재무 데이터는 학술대회 및 데이터 사용자들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인건비 값이 지나치게 작거나 높게 측정된 사업장이 많다는 것과 다수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 재무 현황으로 응답한 사업장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WPS 2007의 재무 현황 설문은 WERS(Workaplce Employment Relations Survey)[1] 2004의 재무 설문과 통계청의 사업체조사의 재무 설문을 벤치마킹하였다. 다수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설문을 배치하였고, 응답자가 인건비 항목을 일관되게 응답할 수 있도

1) WERS는 영국의 사업체패널조사이다.

록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정의로 설문하도록 하였다.

고용부문 설문에서는 최대주주, 사업체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설문과 연구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였다. 사업장 유연성 부문에서 사내하청/용역과 파견근로자로 나누어 업무 특성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 비중에 대한 설문을 하도록 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설문에서는 직접고용 근로자와 간접고용 근로자를 나누어 각각의 고용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설문 구조를 바꾸었다.

인적자원관리 부문 설문에서는 WPS 2005에서는 '인사고과'로 설문을 하였는데 '인사고과(평가)'로 설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2005년 회고적 질문을 포함하였다. 임금수준에 대한 설문은 WPS 2005에서는 신입사원에 대한 설문만 있으나 WPS 2007에서는 과장급 1년차와 부장급 1년차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였다.

비정규직법 관련 설문에서는 WPS 2005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1인 이상 활용하였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고, 2007년 7월 1일에 시행된 비정규직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활용방식의 변화와 관리 현황, 정규직 전환방식과 그 결과, 간접고용과 외주화 및 차별시정조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 비정규 근로자의 활용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비정규직법 관련 설문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비정규 근로자가 아니라 비정규 일자리의 개념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다시 말해 2005년에 일하던 사람이 2007년에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일자리가 계속 비정규직이라면 남아 있는 비정규 일자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작업장 혁신 설문에서는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고, 작업장 혁신의 전반적인 상황, 근로시간, 임금, 작업설계 및 작업조직, 품질관리, 숙련개발과 작업장 혁신의 저해 요인 및 작업장 혁신의 수행방식에 대해 설문하였다.

공공부문 추가 설문은 WPS 2005에서는 공공부문에만 국한한 설문 중 일부를 고용이나 인적자원관리 부문 설문으로 보내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 1>~<표 3>에서 보듯이 WPS 2007은 WPS 2005에 비해 인사담당자 설문을 많이 추가하였기 때문에 설문을 점검하기 위해 사전에 9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고용부문, 인적자원관리 부문, 작업장 혁신 부문과 비정규직법 관련 부문으로 나눠서 하였다. 고용부문에 응답한 업체는 7개, 인적자원관리 부문에 응답한 업체는 3개, 작업장 혁신 부문에 응답한 업체는 6개, 비정규직법 관련 설문에 응답한 업체는 5개이다.

심층조사에 응한 인사담당자들은 고용과 인적자원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이 있지는 않았다. 비정규직법 관련 설문에 응답한 인사담당자들은 비정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는 부문에서 근로자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고 그 외에는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작업장 혁신 설문에 응답한 인사담당자들은 용어들이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어 타업종이 응답하기 어렵고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만 실시하는 제도가 많아 작은 사업장에서는 응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심층조사 후 비정규직법 관련 설문은 일자리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 자세한 설명과 그림을 넣었고, 작업장 혁신 설문은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설문하도록 하였으며 용어에 대한 자세한 부연설명을 추가하였다.

〈표 1〉 WPS 2007의 인사담당자 CAPI 설문의 문항수 변화

		WPS 2005		WPS 2007	
전 체		250		514	
A. 사업장 특성	0. 기본사항	4	33	4	48
	1. 기업의 특성 및 조직변화	8		18	
	2. 사업장의 특성 및 환경	12		18	
	3. 성과변수	9		8	
B. 고용현황 및 고용관리	1. 고용관리(채용 및 이직관리)	13	40	13	56
	2. 사업장 유연성	15		18	
	3. 비정규직 근로자	12		25	
C. 보상 및 평가	1.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	18	65	27	75
	2. 임금체계	18		13	
	3. 성과배분	19		22	
	4. 임금수준 및 인상	10		13	
D.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1. 인사관리 전반	20	73	27	74
	2. 작업조직	29		27	
	3. 근로시간	9		8	
	4.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유	10		7	
	5. 공정한 처우 및 모성보호	5		5	
E. 인적자원개발	1. 교육훈련	12	32	17	22
	2. 경력개발	20		5	
IR. 비정규직법 관련 부가조사	1. 기간제(계약직 등) 근로자 활용방식의 변화			6	76
	2. 기간제(계약직 등) 근로자 관리현황			46	
	3. 정규직 전환방식과 결과			15	
	4. 간접고용 및 외주화			4	
	5. 차별시정조치			5	
H. 작업장 혁신	1. 작업장 혁신 전반			37	129
	2. 근로시간			3	
	3. 임금			23	
	4. 작업설계 및 작업조직			14	
	5. 품질관리			7	
	6. 숙련개발			33	
	7. 작업장 혁신의 저해요인 및 작업장 혁신의 수행방식			12	
Z. 공공부문(추가 설문)				27	27
F. 응답자 정보		7	7	7	7

〈표 2〉 WPS 2007의 노사관계 담당자 CAPI 설문의 문항수 변화

		WPS 2005	WPS 2007
M. 노사관계 (유노조 사업장)	전 체	131	139
	0. 기본사항	6	1
	1. 노무부서 현황	4	9
	2. 노동조합 현황	20	21
	3. 임금 및 단체교섭	26	31
	4. 노동쟁의	23	16
	5. 경영참여	10	17
	6.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16	16
	7. 기업복지 및 산업재해	18	20
	8. 응답자 정보	8	8
N. 노사관계 (무노조 사업장)	전 체	100	112
	0. 기본사항	7	5
	1. 노무부서 현황	5	12
	2. 노사관계 일반 현황	10	
	3. 노사협의회 현황	11	15
	4. 노사협의회 운영	29	30
	5. 경영참여	6	15
	6. 고충처리	8	9
	7. 기업복지 및 산업재해	18	20
	8. 응답자 정보	6	6

〈표 3〉 WPS 2007의 근로자대표 CAPI 설문의 문항수 변화

		WPS 2005	WPS 2007
P. 노사관계 (노동조합 대표)	전 체	114	115
	0. 기본사항	4	2
	1. 노동조합 현황	22	25
	2. 노동조합 선거 및 의사결정 구조	20	21
	3. 노동조합 일상활동	12	21
	4. 교섭구조 및 교섭과정	22	19
	5. 노동조합의 역사	29	
	6. 작업장 혁신		22
	7. 응답자 정보	5	5
Q.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전 체	45	27
	0. 기본사항	7	
	1. 근로자측 의사결정 구조	9	16
	2. 노사협의회 운영	19	3
	3. 경영참여	6	
	4. 작업장 혁신		4
	5. 응답자 정보	4	4

WPS 2007은 WPS 2005와 마찬가지로 사전 컨택, 우편물 발송, 재무 현황 및 근로자 현황 조사표 작성, 사업장 방문 면접조사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사전 컨택은 훈련받은 컨택원이 패널사업장에 WPS 2005에서 응답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WPS 2007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장명, 업종, 주소 등 사업장의 기본 정

보를 확인한 후 우편물 및 조사표를 수령하고 면접조사에 응답할 담당자를 찾는 단계였다. 이 때 WPS 2007에서는 WPS 2005에서와 달리 컨택원을 면접원과 함께 교육시키면서 컨택원이 면접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WPS 2005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체 컨택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know-how)가 쌓은 서울 지역의 컨택원이 지방 지역까지 컨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패널유지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편물 발송 단계에서는 사전 컨택을 통해 확인된 담당자에게 사업체패널조사를 소개하는 브로셔,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재무 현황 및 근로자 현황 조사표를 발송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 소개 브로셔는 조사의 목적, 방법, 구성, 내용, 참여의의, 결과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경총에서 작성한 것을 발송하였다.

재무 현황 및 근로자 현황 조사표의 경우 방문 면접이 진행되기 전에 응답을 완료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재무 현황 및 근로자 현황 조사표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팩스로 발송하여 수거하거나 우편물 발송 단계에서 발송한 조사표를 면접원이 직접 수거하기도 하였다.

사전 컨택을 통해 응답자가 선정되고 재무 현황 및 근로자 현황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면 면접원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WPS 2005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통계청이 개발한 블레이즈(Blaise) 시스템을 활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원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CAPI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수거된 근로자 현황 조사표의 응답을 CAPI용 노트북 컴퓨터에 미리 입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CAPI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노사관계 담당자, 근로자대표에게 각각 진행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Ⅳ. 실사 진행

WPS 2007은 2008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다. WPS 200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부터 컨택원 및 면접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서울 지역의 컨택원 및 면접원 교육은 2008년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대구와 광주 지역의 면접원 교육은 5월 23일, 대전 지역의 면접원 교육은 5월 29일, 부산 지역의 면접원 교육은 5월 30일에 실시하였다. 이 때 서울 지역만 컨택원 교육을 실시한 것은 서울의 컨택원이 지방의 사전 컨택을 함께 담당하기 때문이다. 교육받은 컨택원은 서울에 10명이며, 면접원은 서울 30명, 부산 15명, 대구 8명, 광주 8명, 대전 10명 정도였다.

〈표 4〉 2006 사업체패널조사 컨택원 및 면접원 교육 프로그램

	시간	교육 내용	세부 내용	해당자
제 1 일	10:00～10:10	교육 안내	전체 교육일정 및 내용소개	컨택원과 면접원 대상 교육
	10:10～11:00	사업체패널조사 소개	패널 개념, 조사의의, 활용방향, 사업체패널팀 소개	
	11:00～11:15	휴식		
	11:15～12:10	컨택 관련 교육	사전 컨택 진행 설명, 유의사항 및 세부 내용 설명, 컨택원과 면접원 모두 서로에 대한 역할 이해	
	12:10～13:30	점심식사		
	13:30～15:00	면접조사 진행 교육	면접시 준비사항(사전 체크), 상황별 대처방법, 면접시 유의사항 점검, 컨택원의 조사 전반에 대한 숙지	
	15:00～15:15	휴식		
	15:15～16:30	CAPI 시스템 관련 교육	CAPI 시스템 설명, 기존 조사와의 방법상 차이점 등 특이사항 사전 전달	
	16:30～17:00	교육 마무리		
제 2 일	10:00～10:50	응답도구 사용 설명	실제 상황에 맞춘 노트북 이용방법 소개	면접원 대상 교육 (노트북 필요)
	10:50～11:00	휴식		
	11:00～12:00	CAPI 실습	설문 내용 및 CAPI 사용점검	
	12:00～13:30	점심식사		
	13:30～14:30	CAPI 실습	설문 내용 및 CAPI 사용점검	
	14:30～14:40	휴식		
	14:40～15:40	CAPI 실습	설문 내용 및 CAPI 사용점검	
	15:40～15:50	휴식		
	15:50～17:30	CAPI Test	CAPI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생략함	

다음으로 CAPI 설문 응답에 걸린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표 5>, <표 6>과 같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시간 관련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표 5>에서는 인사담당자와 노사관계 담당자의 CAPI 설문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보여주는데, 81% 정도의 사업장에서 두개 설문을 동일한 응답자가 응답하였기 때문에 두 설문의 소요시간을 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사업장의 52.7%에서 인사 및 노사관계 담당자 CAPI 설문을 완성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18.0%의 사업장은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확연히 설문 응답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CAPI 설문에서 질문하고 있는 제도나 절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정규직 법안 관련 설문과 작업장 혁신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인사 및 노사관계 담당자 CAPI 설문에 소요된 시간이 평균 89분으로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의 68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1시간 반 정도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의 비중이

〈표 5〉 WPS 2007의 인사담당자 설문 소요시간 현황

	전 체		공공부문 제외										공공부문	
			소계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사업장수	비율	사업장수	비율	사업장수	비율	사업장수	비율	사업장수	비율	사업장수	비율	사업장수	비율
0~29분	124	7.1	123	7.6	91	13.4	16	3.7	8	3.4	8	3.0	1	0.8
30~44분	309	17.7	300	18.5	212	31.2	56	12.8	20	8.4	12	4.5	9	7.2
45~59분	391	22.4	380	23.5	173	25.5	109	24.9	55	23.2	43	16.2	11	8.8
60~74분	350	20.1	328	20.3	116	17.1	103	23.6	51	21.5	58	21.8	22	17.6
75~89분	255	14.6	230	14.2	49	7.2	7.4	16.9	46	19.4	61	22.9	25	20.0
90~119분	208	11.9	170	10.5	31	4.6	57	13.0	35	14.8	47	17.7	38	30.4
120분 이상	107	6.1	88	5.4	7	1.0	22	5.0	22	9.3	37	13.9	19	15.2
전 체	1,744	100.0	1,619	100.0	679	100.0	437	100.0	237	100.0	266	100.0	125	100.0
평균(분)	68		66		53		70		76		85		89	
중위수(분)	62		61		49		71		71		78		88	

45.6%로 매우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WPS 2005의 평균 응답시간 58분과 비교하였을 때 WPS 2007의 평균 응답시간은 68분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WPS 2007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설문, 작업장 혁신 설문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응답해야 하는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대표 CAPI 설문의 경우 노조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응답하는 설문의 문항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노조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설문응답 소요시간을 각각 분석하였는데 이는 <표 6>과 같다. 노조대표의 CAPI 설문 진행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7분이다. 공공부문이 19분으로 일반사업장에 비하여 응답소요시간이 다소 길고,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평균 응답소요시간도 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CAPI 설문에 있어서는 응답소요시간이 평균 4분 정도로 노조대표에 비하여 짧게 나타났다. WPS 2005의 근로자대표 설문에 조사된 패널화가 필요하지 않은 설문 문항은 WPS 2007의 근로자대표 설문에서는 설문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덜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WPS 2007의 근로자대표 설문 소요시간 현황

		전 체	공공부문 제외					공공부문
			소계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노조대표	사업장수	662	570	98	172	136	164	92
	평균(분)	17	17	16	16	18	17	19
	중위수(분)	15	15	13	13	16	16	21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사업장수	831	800	385	242	86	87	31
	평균(분)	4	4	4	4	5	5	4
	중위수(분)	4	4	3	4	4	4	4

V. 응답 현황

WPS 2007은 원표본사업장 1,749개(민간부문 1,615개와 공공부문 134개)와 추가 표본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2008년 6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약 5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원표본사업장 1,424개(민간부문 1,299개와 공공부문 125개)와 추가 표본사업장 320개에서 조사가 완료되었다.

원표본사업장 1,749개와 추가 표본사업장 1,053개의 조사완료 현황은 <표 7>과 같으며, 폐업, 휴업과 결번 등의 사유로 115개 사업장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유효표본 1,634개 중 210개 사업장에서 응답거절, 내부결제 등의 사유로 조사가 성공되지 못하였으며, 1,424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가 성공하였다. 원표본 가운데 공공부문을 제외한 표본사업장의 경우 114개 사업장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유효표본 1,501개 중 202개 사업장에서 조사가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1,299개 사업장에서 조사가 성공하였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1개 사업장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유효표본 133개 사업장 가운데 8개 사업장이 응답을 거절하여 조사가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125개 사업장에서 조사가 성공하였다. 추가 표본의 경우에는 27개 사업장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유효표본 1,026개 중 706개 사업장에서 조사가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320개 사업장에서 조사가 성공하였다.

〈표 7〉 WPS 사업체패널조사 표본 및 추가리스트 조사 완료 현황

		표본사업장						추가리스트	
		전 체		공공부문 제외		공공부문			
		사업장수	비 율	사업장수	비 율	사업장수	비 율	사업장수	비 율
조사대상에서 제외	폐업, 휴업 등 해당안됨	91	5.2	90	5.6	1	0.7	11	1.0
	결번	24	1.4	24	1.5			16	1.5
	소 계	115	6.6	114	7.1	1	0.7	27	2.6
조사 실패	거절	148	8.5	145	9.0	3	2.2	187	17.8
	기타사항[1)]	62	3.5	57	3.5	5	3.7	519	49.3
	소 계	210	12.0	202	12.5	8	6.0	706	67.0
조사 성공		1,424	81.4	1,299	80,4	125	93.3	320	30.4
전 체		1,749	100.0	1,615	100.0	134	100.0	1,053	100.0

주 : 1) 표본사업장에서는 기타사항이 '내부결제중, 진행보류 등을 의미'하고, 추가리스트에서는 '내부결제중, 진행보류 뿐 아니라 진행중단을 의미'함.

〈표 8〉 WPS 2007 패널사업장의 규모별 패널제외율 및 패널유지율

	전 체	공공부문 제외					공공부문[1]
		소계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최초 표본(A)	1,749	1,615	623	450	244	298	134
조사대상 제외(B)	115	114	53	36	8	17	1
조사 실패(C)	210	202	79	51	27	45	8
조사 성공(D)	1,424	1,299	491	363	209	236	125
패널제외율($\frac{B\times 100}{A}$)	6.6	7.1	8.5	8.0	3.3	5.7	0.7
패널유지율($\frac{D\times 100}{C+D}$)	87.1	86.5	86.1	87.7	88.6	84.0	94.0

WPS 2007의 사업장 규모별 패널제외율과 패널유지율은 <표 8>에서 보여준다. 패널제외율은 조사 패널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대상 제외 표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패널유지율은 조사 패널사업장 전체에서 조사대상 제외 패널사업장을 뺀 나머지 유효 패널사업장에 대한 조사 성공 패널사업장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의 패널제외율은 7.1%이며, 특히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패널제외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폐업·휴업 등의 사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일반사업장에 비하여 사업장 특성 등에 있어서 변화가 적기 때문에 패널제외율이 0.7%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패널유지율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사업장은 86.5%, 공공부문은 94.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WPS 2007 패널사업장의 산업별 패널제외율과 패널유지율을 살펴보면 <표 9>와 같이 나타난다. 패널제외율은 금속자동차운송과 전기전자정밀이 10% 정도로 가장 높고, 운수업이 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패널유지율의 경우에는 전기가스수도업과 사회서비스업이 9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서비스업이 82.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업종에서는 84~90% 정도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공부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9〉 WPS 2007 패널사업장의 산업별 패널제외율 및 패널유지율

	전체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기타	사회서비스업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자동차운송	전기전자정밀								
최초 표본(A)	1,749	187	158	220	165	26	91	149	147	33	70	234	269
조사대상 제외(B)	115	14	12	22	17	1	8	14	1	1	5	14	6
조사 실패(C)	210	26	18	31	21	2	8	24	15	5	7	32	21
조사 성공(D)	1,424	147	128	167	127	23	75	111	131	27	58	188	242
패널제외율($\frac{B\times 100}{A}$)	6.6	7.5	7.6	10.0	10.3	3.8	8.8	9.4	0.7	3.0	7.1	6.0	2.2
패널유지율($\frac{D\times 100}{C+D}$)	87.1	85.0	87.7	84.3	85.8	92.0	90.4	82.2	89.7	84.4	89.2	85.5	92.0

사업장의 지역별 표본제외율과 응답률은 <표 10>과 같다. 패널제외율은 영남 지역이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충청 지역이 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패널유지율은 전라·제주 지역이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이 8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1>에서는 조사 성공한 패널사업장 1,424개에 대해서 WPS 2005와 WPS 2007의 규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패널사업장 1,424개 가운데 81.7%인 1,163개 사업장이 WPS 2005의 규모와 WPS 2007의 규모에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나, 6.5%인 93개 사업장은 WPS 2007에서 규모가 더 적어졌다고 나타났고, 나머지 11.8%인 168개 사업장은 WPS 2007에서 규모가 더 커졌다고 나타났다. 이 중 변동이 크게 나타난 4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모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WPS 2007 패널사업장의 지역별 패널제외율 및 패널유지율

	전 체	서울	인천·경기	강원·충청	전라·제주	영남
최초 표본(A)	1,749	594	425	204	118	408
조사대상 제외(B)	115	37	29	7	5	37
조사 실패(C)	210	89	40	23	6	52
조사 성공(D)	1,424	468	356	174	107	319
패널제외율($\frac{B\times 100}{A}$)	6.6	6.2	6.8	3.4	4.2	9.1
패널유지율($\frac{D\times 100}{C+D}$)	87.1	84.0	89.9	88.3	94.7	86.0

〈표 11〉 WPS 2005와 WPS 2007의 규모 변화

WPS 2005 \ WPS 2007	100인 미만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100인 미만	458	54	4	8	524
100~299인	33	319	30	22	404
300~499인	4	33	139	50	226
500인 이상	1	9	13	247	270
전 체	496	415	186	327	1,424

Ⅵ. 맺음말

WPS 2007은 2006년에 실시하였던 WPS 2005의 경험을 바탕으로 6개월 가량의 표본과 설문 설계 및 예비조사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6~11월 초까지 약 5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WPS 2005 조사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통계청의 블레이즈(Blaise) CAPI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트북을 이용한 면접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공공부문 134개를 포함한 전체 1,799개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1,424개 사업장에서 조사가 성공하였다. 폐업, 휴업 및 거절 등의 사유로 이탈된 패널사업장은 표본을 대체하여 320개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총 1,7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WPS 2007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현재는 로직상 오류가 있거나 무응답 등의 데이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응답을 재확인하는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재확인 과정이 끝나면 데이터 무응답 대체(imputation)작업과 각 분야 전문 연구자들의 데이터 검토작업 및 학술대회 등을 거쳐 2009년 하반기에 일반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데이터는 WPS 2005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홈페이지(http://www.kli.re.kr/wps)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특히 WPS 2007의 패널유지율은 87.1%로서 기존의 사업체 대상 조사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조사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을 모집단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대규모 패널조사이고 2차년의 패널데이터가 구축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 등에 있어서 본 데이터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7년의 주요 이슈인 비정규직법의 효과 및 우리나라의 작업장 혁신의 수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LI